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5.11.26, 한-EU연구협력센터>

○ 브뤼셀서 제1회 유럽 연구보안 컨퍼런스 개최(11.21)

-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첫 번째 유럽 연구 보안 컨퍼런스가 개최됨. 집행위와 12개 유럽 연구 관련 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EU·비EU 포함 15개국과 OECD, G7, NATO가 자국의 연구보안 정책을 공유해 연구혁신 생태계 인식 제고 및 회복력 강화 현황을 폭넓게 조명
- 컨퍼런스에서 개방성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보안 이슈를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에 포함하는 방안 및 유럽 연구보안 전문센터 설립, 실사 플랫폼 구축, 회복력 테스트 방법론 개발 등의 추진 계획을 소개

○ 집행위,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 발표(11.19)

- 집행위는 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를 발표. 패키지는 AI·사이버보안·데이터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 '디지털 옴니버스',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연합 전략', 기업의 디지털 신원 제공을 위한 '유럽 비즈니스 월렛'으로 구성
- (디지털 옴니버스) AI, 사이버보안, 데이터 규정의 간소화로 규정 적용 효율화, (데이터 연합 전략) 데이터 연구소 접근성 확대를 통해 AI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조치 제시, (유럽 비즈니스 월렛) 기업·공공기관에 단일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여, 문서 서명, 시간 기록, 문서 교환 등을 가능하게 하고, 회원국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

○ EU, Choose Europe 신규 공모 예산 두 배로 늘려 확대 시행 예정(11.25)

- EU는 연구 인재 유치를 위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2027년에 5,125만 유로 규모의 신규 공모를 계획 중임
- EU 자금이 프로그램의 1단계 또는 2단계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지원 기관은 급여 수준, 경력 개발 기회, 장기적인 경력 전망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평가 요소로 작용

- (기타) ▲EU, 고용보호법이 혁신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 제기(11.20)
▲호라이즌 유럽 '26~'27 워크프로그램, Widening 예산 확대(11.19)
▲영국·스위스, 스피나아웃 생태계 선도 ... EU는 성장 잠재력 확인(11.25)